



방어를 끝까지 → 1위 '양현종 드라마'



‘대반전’으로 끝난 KIA타이거즈 양현종의 2019시즌. 마지막까지 양현종은 뜨거운 이름이 된다.

KIA 에이스 양현종은 지난 17일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를 통해 시즌 마지막 등판을 소화했다.

1회 2사 1루에서 양의지에게 투런포는 맞았지만 이후 양현종은 흔들림 없는 피칭을 하면서 5회 2사까지 번타 행진을 이어갔다.

그리고 안타와 유격수 실책으로 1사 1·2루에 몰렸지만 중견수 플라이로 5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책임지고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2-2로 맞선 상황에서 등판이 끝나면서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양현종은 평균자책점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앞서 평균자책점 1위였던 두산 린드블럼이 키움전에서 7.1이닝 6실점을 하면서 순위가 달라졌다. 린드블럼의 평균자책점은 2.36, 양현종이 2.25가 되면서 1위에 변화가 있었다.

양현종은 예정됐던 마지막 등판을 5이닝 2실점으로 끝내면서 2.29로 시즌을 끝내게 됐다.

가속 일로 시즌 준비가 늦어지면서 양현종의 시즌 시동도 늦게 걸렸다.

3월 23일 LG와의 시즌 개막전 선발로 나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양현종은 이후 등판에서는 스스로 무너졌다.

5월 2일 삼성전서 첫 승이 나오기 전까지 양현종은 6경기에서 5패만 남겼다. 평균자책점은 8.01까지 치솟았다.

양현종은 “초반에 준비를 늦게 해서 안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그 뒤로 꾸준히 운동하고 잘 준비했다”며 시즌 초반을 돌아봤다.

시작은 좋지 못했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에이스의 모습이 진가를 발휘했다.

특히 8월의 양현종은 막을 자가 없었다. 양현종은 8월 5경기에서 35.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홈을 내준 주자는 단 두 명밖에 없었다. 0.51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을 수확하면서 KBO리그 8월 MVP와 월간 투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9월 첫 등판에서 야수진의 실수 연발 속 6이닝 5실점했지만, 야수 실책으로 인해 자책점은 1점만 기록됐

다. 그리고 9월 11일 롯데전을 86구 완봉승으로 장식한 양현종은 17일 5년 연속 1800이닝(184.20이닝)을 돌파하면서 화려하게 시즌을 마무리했다.

8.01까지 찍었던 양현종의 평균자책점은 2.29로 끝났다.

“후련하기도 하고 아쉬운 점도 있다. 부상 없이 마무리 잘해서 뿌듯한 것 같다”며 마지막 등판 소감을 말한 양현종은 평균자책점 1위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양현종은 “나도 사람이라서 욕심이 난다”며 “제가 할 건 다한 것 같다. 린드블럼을 상대하는 상대 팀 타자를 응원해야겠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만약 린드블럼이 다음 등판에서 5.1이닝 무실점을 하면 다시 1위를 탈환하게 된다. 양현종은 2.290, 린드블럼은 2.289가 된다.

KIA는 가을 잔치에서 탈락하면서 잊혀진 팀이 되었지만, 양현종의 이름은 두산의 2위 싸움 속에 늦게까지 회자될 전망이다.

한편 양현종은 18일 엔트리에서 빠졌지만 KIA의 시즌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

양현종은 “훈련 똑같이 하고 팀이 이길 수 있도록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많이 돕겠다”며 “시즌 끝나고 프리미어라는 중요한 경기가 있으니까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NC전 시즌 마지막 등판
5이닝 2실점 호투...방어를 2,29
두산 린드블럼 2,36 제치고 1위

4~5월 부진에 8.01까지 치솟기도
8월 35.1이닝 동안 단 2실점
9월 완봉승 등 잇단 호투로 드라마 완성

KIA, 김주형·서동욱·박경태 방출

신인 11명과 계약 마무리

KIA타이거즈가 2020년도 신인선수 11명과 입단 계약을 완료했다.

KIA는 1차 지명선수인 정해영(광주일보)과 계약금 2억원, 연봉 2700만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또 2차지명 1라운드 박민(아탑고·내야수)과는 계약금 1억5000만원, 2라운드 홍종표(강릉고·내야수)와는 계약금 1억1000만원에 계약을 끝냈다.

이외에 KIA는 3라운드 오규석(휘문고·투수·8000만원), 4라운드 유지성(북일고·투수·7000만원), 5라운드 김양수(북일고·투수·6000만원), 6라운드 장재혁(경남고·투수·5000만원), 7라운드 백현종(동강대·포수·4000만원), 8라운드 강민수(장충고·투수·3000만원), 9라운드 이인한(강릉영동대·외야수·3000만원), 10라운드 최홍준(부산공고·투수·3000만원) 등 신인 선수 11명과의 계약을 완료했다.

연봉은 모두 2700만원이다. 한편 신인 선수들과 계약을 마무리한 KIA는 김주형·서동욱(이상 내야수), 박경태(투수)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

KIA는 최근 선수들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500득점 김선빈 “전광판 보고 알았어요”

덕아웃 T 특특

▲전광판 보고 알았어요 = 본인도 몰랐던 500득점이었다. 김선빈은 17일 NC와의 홈경기에서 3회 우측 안타로 출루한 뒤 밀어내기 볼넷으로 홈에 들어오면서 팀의 첫 득점을 만들었다. 이는 김선빈의 통산 500번째 득점이기도 했다. 김선빈은 “500득점이라고 생각도 못했다. 홈에 들어오니까 김선빈 뭐라고 해서 봤는데 전광판에 500득점이라고 쓰여 있었다”며 “와 많이 했구나 생각했다”고 웃었다.

▲동행합니다 = KIA가 18일 롯데와의 경기에 앞서 대폭적인 엔트리 변화를 줬다. 전날 마지막 등판을 끝낸 양현종과 함께 월랜드, 김주찬, 한승택을 엔트리에 서 말소했다. 월랜드는 다른 투수들의 등판 기회를 위

해 자리를 비워주게 됐고, 김주찬은 종아리가 좋지 않다. 한승택은 차분하게 2군에서 타격을 보완하라는 의미다. 대신 이날 상무에서 제대하고 온 투수 장지수, 포수 이정후, 내야수 최정용, 외야수 류승현이 엔트리에 등록됐다. 엔트리에 빠졌지만 양현종과 김주찬은 선수단과 함께한다. 박흥식 감독대행은 “선수들이 젊어졌다. 김주찬과 양현종이 조연도 하고 코치들이 못 해주는 부분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색해요 = 오랜만에 입는 유니폼이 어색하면서도 좋은 ‘에피소드’이다. 18일 훈련이 끝난 뒤 이제 막 전역을 한 선수들이 새로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17일 국제체육부대에서 전역한 투수 박진태와 포수 이정후도 “유니폼이 어색하다”며 빨간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했다. 이정후는 바로 18일 엔트리에 합류해 새로운 시작을 했고, 박진태는 오는 9월 21일 잠실에서 열리는



지난 17일 500득점을 달성한 김선빈이 NC전 MVP에 선정된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두산과의 경기에 선발로 출격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 탁구 남북대결서 완패

아시아선수권대회 5~8위 순위 결정전 0-3

한국 여자탁구가 2020년 도쿄올림픽의 전 초전인 제24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성사된 남북대결 패배로 7-8위 결정전으로 밀렸다.

유남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대표팀은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열린 여자부 챔피언 디비전 5-8위 순위 결정전에서 서효원(한국마사회)과 전지희(포스코에너지), 신유빈(청명중)을 내세웠지만 북한에 0-3으로 졌다.

8강에서 싱가포르에 1-3으로 탈미를 잡혀 4강에 오르지 못했던 한국은 7-8위 결정전에서 홍콩과 맞붙는다.

한국 여자탁구는 2015년 파타야(태국) 대회와 2017년 우시(중국) 대회에서 각각 단체전 동메달을 땄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초라

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

한국은 첫 단식에 수비 전문인 ‘판언니’ 서효원을 내보냈지만 서효원이 북한의 김남해에 1-3(11-7 5-11 9-11 15-17)으로 저기선 제압에 실패했다.

이어 2단식에 나선 간판 전지희도 북한의 김송이에 1-3(11-9 10-12 7-11 3-11)으로 역전패해 게임 스코어 0-2로 몰렸다.

유남규 감독은 3단식에 15세인 막내 신유빈을 투입해 승부수를 띄웠지만 신유빈마저 차효심에 0-3(8-11 5-11 7-11)으로 완패했다.

이번 대회 여자단체전 결승에서는 ‘절대 1강’ 중국이 천명과 류스원, 쑨잉사를 앞세워 일본을 3-0으로 완파하고 1위에 주는 도쿄올림픽 직행 티켓을 얻었다.

중국은 특히 이번 대회 우승으로 여자단체전에서 2007년 대회 이후 7연패를 달성했고, 1972년 원년 대회 이후 통산 16번째 우승에 성공했다.

남자부 단체전은 한국-대만, 중국-일본 간 4강 대결로 압축됐다. /연합뉴스



인간 새 17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MGA 국제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37회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 불종목에 참가한 한 선수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